

GREEK

INFINITE

G

R

E

E

C

E



AMAZING

APOLLO

GOD

THE BEGINNING
— IS THE MOST —
IMPORTANT
PART OF THE
WORK

YOU CAN'T
LIVE
WITHOUT
FETA
CHEESE

INSPIRING

“미친 헤라클레스 Mainomenos Heracles”!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numeniu@snu.ac.kr

헤라클레스는 전쟁에서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자연 재해에서 인간을 구해준 영웅이다. 이런 영웅도 역병의 희생자가 되고 마는데, 헤라클레스의 이런 모습을 다룬 작품이 소포클레스(Sophocles, 기원전 487-406)의 『트라키스 여인들』과 에우리피데스(Euripides, 기원전 585-406)의 『미친 헤라클레스』다. 『트라키스 여인들』은 아테네에 역병이 창궐했던 429년에서 425년 사이에 상연되었다. 소포클레스가 헤라클레스를 무대 위에 세운 것은 영웅도 역병 앞에서는 별 수 없고, 소위 “가짜 뉴스”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헤라클레스를 죽음으로 이끈 통치자를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죽어가는 헤라클레스의 말이다.

지금 나는 가엽게도
관철이 풀리고 살이 찢긴 채
보이지 않는 파괴자에게
죽어가고 있구나.

『트라키스 여인들』 제 1103행~1104행

“보이지 않는 파괴자(typhle ate)”가 역병인데, 보이지 않는 파괴자인 역병과의 전쟁에서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이 더 이상 쓸모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포클레스는 『트라키스의 여인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파괴자, 역병이 이야기하는 혼란을 강조한다. 역병의 원인을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역병과 관련된 사태와 사건에 대한 사실(Fact) 확인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출처 불명의 소문과 음모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중대한 영향을 끼칠 때에 발생하는 혼란을 다룬 작품이 『트라키스 여인들』이다. 헤라클레스의 부인인 데이아네이라(Deianeira)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사자가 전해준 보고만 듣고서, 이를 실행에 옮긴 탓에 개인과 국가가 비극적인 파멸을 맞게 된다.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이아네이라는 그럴 듯한 말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중에게 아부하는 말을 중시하는 당시 아테네의 정치가들을 상징한다. 그런데, 역병과 같이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 정치가들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 오이디푸스다.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임에도 들어주고, 그 말의 실마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진실과 사실을 규명한 왕이 오이디푸스였다. 이 점에서 데이아네이라는 오이디푸스의 정반대에 서 있는 통치자였다. 데이아네이라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편 헤라클레스를 죽음으로 내몬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파멸시킨 자들, “데마고구스(Demagogus)”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트라키스 여인들』은 보이지 않는 파괴자와 싸울 때에는 헤라클레스가 보여주었던 영웅 리더십이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에우리피데스의 『미친 헤라클레스』는 통치자의 경솔함과 성급함이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 지를 보여주고, 그 통치자가 권력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통치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작품이다.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하겠다. 헤라클레스는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하 세계를 방문한다. 지하 세계의 출입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Kerberos)를 끌고 오기 위해서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데, 여기에는 헤라클레스의 이와 같은 유행을 통해서 지하 세계에 맞서려는 마음과 이를 통해서 죽음에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상징적인 행위이다. 헤라클레스는 죽음에 맞설 수 있는 영웅이었다. 헤라클레스가 지하 세계에 내려가 있는 동안, 지상의 테베에서는 뤼코스(Lykos)라는 통치자가 특정 세력의 지지를 받고서 헤라클레스의 장인인 크레온을 죽이고 왕위를

친탈한다. 후환을 두려워 한 퀴코스는 헤라클레스의 아내인 메가와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친부인 암피트뤼온을 죽이려 시도한다. 이들은 제우스의 제단으로 피신하지만, 이곳까지 쫓아 온 퀴코스는 이들을 불태워 죽이려 든다. 바로 그때, 헤라클레스가 지하 세계에서 돌아온다. 가족을 구하고 퀴코스를 죽인다. 바로 그때, 제우스의 외도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헤라클레스를 미워하던 헤라가 광기에 휩싸인 릿사를 보내어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든다. 미쳐버린 헤라클레스는 가족들도 퀴코스와 함께 몰살해 버린다. 간신히 제 정신을 차린 헤라클레스가 절망으로 몸부림친다. 마침 지하 세계에서 그의 도움을 받아 풀려 난 테세우스가 나타나 그를 죄에서 정화시켜주고 아테네로 데려간다. 이상의 줄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우리피데스는 헤라클레스의 힘과 용기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부각시킨다. 죽음에 맞서 과몰과 외부의 적과의 전쟁에서 헤라클레스는, 테세우스의 말대로 “인류의 위대한 은인이자 위대한 친구”(제1252행)였다. 하지만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국내 정치에서는 헤라클레스의 그 힘과 용기는 폭력과 광기로 돌변한다. 여기에서 헤라클레스의 힘이 들어 있는 이중성이 드러난다. 물론 헤라클레스가 미치게 된 데에는, 헤라의 저주도 한 몫 거들었다. 칼과 힘에 기반한 권력의 이중적인 성격도 중요하다. 그 힘은 각기각소에 잘 사용하면 좋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사용하면, 그것은 폭력이고 광기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미친 헤라클레스』이다.

적을 죽일 때에 위력을 발휘했던 광기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미쳐버린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가족을 도륙해 버린다. 구원자가 파괴자로 돌변한다. ‘미친 헤라클레스’를 보면서 아테네의 시민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저러면 안 된다’는 연민의 감정을 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포도 함께 느꼈을 것이다. 이 공포는 이중적이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튀란노스 퀴코스의 위협에서 권력자의 횡포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관객들은 자신들을 독재자의 횡포로부터 구원해 준 헤라클레스가 미쳐

서, 자신의 가족을 도륙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정화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구원자가 파괴자로 변할 때, 공포는 배가되므로. 에우리피데스가 이렇게 해소될 수 없는 공포 드라마를 무대에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쟁에서 요청되는 리더십이 정쟁을 다루어야 하는 정치에서는 매우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외부의 적에게는 용기이지만 내부의 경쟁자에게는 광기로 작용하는 힘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자신의 가족과 동족



을 학살하는 무기로 돌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특히, 역병을 이겨낼 때 요구되는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광기로 변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사려깊은 판단력과 절제력의 리더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테베를 해방시킨 그 힘이 테베를 멸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테베의 해방자가 테베의 파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조심하려는 헤라클레스의 친부인 암피트리온의 말이다.



내 아들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적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 다운 일이다. 다만, 너무 서둘지 마라.

『미친 헤라클레스』 제585-586행

용기가 광기로 변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신중함, 곧 서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힘에 취한 헤라클레스는 적을 죽이듯이 가족을 죽인다. 헤라클레스를 헤라클레스로 만들어 준 그 정신이 헤라클레스를 파괴하는 셈이다. 그 정신이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라”는 정의관이었다. “애친증적(愛親憎敵)”의 정의관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의관은 특히 외부의 적과의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의 정치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미친 헤라클레스』는 이런 양면성을 지닌 정의관을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다. 퀴코스가 특정 당파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찬탈했는데, 헤라클레스가 튀란노스를 몰아내고, 권력을 되찾아서 정의를 회복하였다는 이야기로 끝낸 것이 아니라, 헤라클레스가 독재자를 몰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족까지 몰살하는 장면으로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여기에서 에우리피데스의 문제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다름이 아니라, 정치의 관점에서 “애친증적”의 정의관을 비판적으로 반성하자는 것이었다. 즉,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증오하는 정의관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즉 그것은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정쟁의 경쟁자가 외부의 적군은 아님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전쟁이 끝나면, 적군도 인간이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정쟁에 패배한 경쟁자를 외부의 적군보다도 더 심하게 공격하는 것은 광기이다. 극단적이지만,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헤라클레스였다. 에우리피데스는 애친증적의 상징인 헤라클레스의 추방을 통해서 전통적인 정의관의 해체를 시도한다. 물론, 에우리피데스가 행한 이런 해체의 실체와 진의를 꿰뚫어 본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불쾌하게 여긴 관객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



이, 헤라클레스는 외부의 적을 물리쳐서 내부의 세계를 지켜준 인이자 위대한 친구이었기에. 하지만, 에우리피데스는, 헤라클레스를 테베의 해방자에서 테베의 파괴자가 되어 테베의 저주로 만들어 버린다. 이를 통해서, 애친증적이라는 테베(실은 아테네)의 정의관을 해체한다. 보이지 않는 적인 역병과 싸울 때에는 보이는 적과 싸울 때에 발휘했던 헤라클레스의 힘과 완력이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은 광기가 되어 가족과 동족을 학살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에. 이 점에서, 에우리피데스는 소포클레스보다는 분석적이다. 소포클레스가 역병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치 리더십을 제시했다면, 에우리피데스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적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정의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석했기 때문이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는 테베 시민들을 몰살한 역병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 오염의 원인이자 오염 자체라는 점을 인정한다. 오이디푸스의 이와 같은 모습은 통치자로서 보여주어야 할 책임감을 보여준다.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둘로 쪼개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오이디푸스는 구제받아야 마땅한 통치자로 거듭난다. 특히, 역병과 같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때에는 그 원인과 책임을 남에게 돌릴 수가 없는데,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오염의 원인임이 드러나자 그 책임을 물어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서 추방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이를 통해서 그는 공동체의 분열을 막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통치자로서 이런 책임감을 가진 오이디푸스가 권좌에서 물러나자, 테베는 두쪽으로 쪼개어 동족상잔의 내전에 휩싸였다. 어쨌든, 오이디푸스는, 흔히 집권 세력이 흔히 벌이는, 손쉬운 정책을 하지 않았다. 특정인이나 특정의 소수 세력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의 정치를 말이다. 역병이 돌게 되면, 이와 같은 희생양 만들기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데, 서기 2세기에 로마에 역병이 돌아 로마인들은 기독교도를 역병의 원인으로 몰았고, 중세에 흑사병이 돌아 유럽인들은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물론 아테네인들도 스파르타인들을 역병을 일으킨 주범으로 몰긴 했지만, 오이디푸스는 이런 손쉬운 정책을 행하지 않았다. 대신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정치인에게 물었다. 아테네 시민들이 무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오이디푸스 왕에게 환호를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실제로 아테네를 통치했던 통치자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오이디푸스에게서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에우리피데스는 전통적인 영웅인 헤라클레스를 떠받들고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라”는 정의관을 전면적으로 해체한다. 이 대목에서,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해야 한다”는 정의관이 포괄하는 효력의 범위를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애친증적의 정의관은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울 때에 공동체를 단합시

키는 중요한 원리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부로 공동체로 향할 때, 그것은 공동체를 쪼개고 가르는 힘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소위 ‘진영론’도 여기에서 그 진상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진영론도 기본적으로는 애친증적의 원리를 바탕으로 삼는 정쟁의 전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정쟁에서 경쟁자를 전쟁에서 죽여야 하는 적으로 보게 만들고, 정치적인 경쟁에서 패배한 정파나 지지 세력을 배타적인 적대 세력으로 몰아버리며, 심지어는 외부의 적에게도 사용하지 않은 모략과 음모를 꾸미는 것도 일삼으며, 이는 중국에는 국가 공동체를 사랑과 우정의 한마음이 아니라 혐오와 증오의 두 마음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는 종종 내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어떤 정치적인 사태가 발발하면, 정치가들은 그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자신들의 적대 세력에게 돌리기를 서슴지 않는데, 아테네의 튀란노스(Tyrannos)들이 전형적으로 이와 같은 음모론적인 전술과 전략에 아주 밝았던 이들이었다.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은 이들을 비판하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활개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일반 시민을 교육하려는 아테네식 ‘계몽’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은 과연 교화되었을까? 아테네 사회는 과연 성숙했을까? 내 생각에,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의 같은 작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사회적으로 “애친증적”의 정의관을 극복하지 못했다. 어쩌면,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성숙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실은 아테네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허둥대는 미국은 과연 어떠한가? 트럼프와 트럼프 정권이 보여주는 실례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라”는 전쟁의 전략과 전술이 선거의 그것들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나라 전체가 역병이라는 특수 재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이다. 역병 시대에 공동체를 위협으로 몰고 가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애친증적의 정의관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에우리피데스의 미친 헤라클레스를 작품이 아닌 역사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라”는 애친증적의 정의관의 극복이 이렇게 어렵다는 소리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내적 성숙이 더딘 것도 이것 때문일지도 모르겠다.